

[사회]

33년만에 학·석사 동시학위 만학도 화제

올 조선대 졸업 54세 운상까지 아들과 함께 학사모 “점경사”



부 수업, 밤에는 석사 수업을 소화했다. 운씨의 노력은 23일 결실을 맺었다. 석·학사 학위를 동시에 딴 것은 물론, 아

버지의 뜻을 이은 아들(윤학·22·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과 함께 졸업식을 했다. 운씨는 “아들이 올해 초 광주시 임용 고사에도 합격, 특수학교인 ‘선명학교’에서 선생님이 됐다. ‘선생님’, ‘교수’에 대한 꿈은 잊지 않았다. 두 아들도 훌쩍 커버린 지난 2002년, 운씨는 다시 용기를 냈다. 3학년 편입생으로 다시 사범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대학 정책대학원에도 진학했다. 학원강사 일을 하면서 낮에는 학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했던 한 가지가 늦깎이 공부 끝에 33년 만에 대학과 대학원 졸업장을 한번에 수료했다.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과 74학번인 운상하(54·광주시 북구 문흥동·사진 오른쪽)씨는 대학 학자금 40만 원을 못내 꿈을 접어야 했다. 시내버스가 학생 7원·어른 10원 하던 시절, 운씨에게 40만원은 엄청난 돈이었다. 한참 꿈꿨던 대학도 3학년 2학기 때였다.

운씨는 곧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고속버스 제작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선생님’, ‘교수’에 대한 꿈은 잊지 않았다. 두 아들도 훌쩍 커버린 지난 2002년, 운씨는 다시 용기를 냈다. 3학년 편입생으로 다시 사범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대학 정책대학원에도 진학했다. 학원강사 일을 하면서 낮에는 학



조선대학교 학위수여식 23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2006학년도(제56회)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학위수여식에는 김주훈 총장·김용재 이사장·박광태 광주시장과 학생·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학사 4천346명, 석사 554명, 박사 124명 등 모두 5천242명에게 졸업장이 수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개조 차량 전조등 단속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불법 개조 전조등 부착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기존 전조등에 비해 약 3배 밝은 고휘도방전(HID) 전조등 등 불법 등화 장치를 차량에 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조등의 방향을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HID 전조등을 달고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면 맞은편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가 돼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법 등화장치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옛 화니백화점 주월점 팔렸다

佛 투자법인 (주)퍼니인테스트먼트 250억에 낙찰 받아



공사가 중단된 채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구 화니백화점 주월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10여년간 방치됐다가 지난해부터 외국계 기업인수설(본보 2006년 11월20일자)이 나돌던 광주시 남구 백운동 옛 화니백화점 주월점이 최근 외국계 기업에 팔렸다. 2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법인인 (주)퍼니인테스트먼트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화니백화점 주월점 경매에서 250억원에 낙찰받았다. 퍼니인테스트먼트는 유치권 등 법적인 정리를 마친 뒤 제3자에게 매각할 방침이어서 재분양 등 건물 활성화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 퍼니인테스트먼트는 낙찰금액과 별도로 S건설과 H업체, 은행 등에 유치권(147억원)을 정리한 뒤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공사가 마무리되고 분양 등이 정상화되면 백운광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유치권을 가진 업체 관계자는 “채권도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가 많아 다른 업체들은 경매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치권 등 법적문제만 정리되면 건물매각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화니 주월점은 대지 1천419평 규모로 건축면적 917평에 지상 9층, 지하 6층 건물로 1997년 9월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1999년 서울의 한 쇼핑몰 업체가 내부 시설공사에 들어갔으나 분양이 저조해 공사를 중단, 방치돼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편 동구 총창로 화니백화점 본점은 지난 2004년 (주)서울레저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뒤 이듬해 종합문화쇼핑몰 ‘하이하리’로 재개발하기 위해 분양에 들어갔으나 미미한 분양률로 사업을 포기했다. 최근 부동산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제39기) 결산공고 posco

대차대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천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부)	
I. 유 동 자 산	7,870,885,111	I. 유 동 부 채	1,746,803,683
(1) 당 좌 자 산	5,136,180,708	1. 매 입 채 무	519,681,969
1. 현금및현금성자산	512,420,904	2. 미 지 급 법 인 세	567,558,742
2. 단기금융상품	626,445,921	3. 미 지 급 배 당 금	3,668,804
3. 단기부채증권	2,074,440,025	4. 유 동 설 비 부 채	10,298,183
4. 매출채권	1,805,728,150	5. 미 지 급 금	305,795,983
대 손 충 당 금	△1,986,301	6. 선 수 금	30,037,698
5. 단기대여금	14,069	7. 예 수	24,045,438
대 손 충 당 금	△15	8. 미 지 급 비 용	200,095,590
6. 미 수	116,063,690	9. 선 수 수 익	2,268,475
대 손 충 당 금	△22,880,671	10. 이 연 법 인 세 부 채	75,824,381
7. 미 수 수 익	16,447,742	11. 기 타 의 유 동 부 채	7,628,480
8. 선 급 비 용	4,574,037		
9. 선 급 비 용	4,866,215	II. 고 정 부 채	2,824,310,998
10. 기 타 의 당 좌 자 산	46,942	1. 사	2,073,391,283
(2) 고 조 자 산	2,734,704,403	사채할인발행차금	△12,666,859
1. 계	495,568,924	2. 원 화 장 기 차 입 금	45,100,000
2. 부 산	2,400,575	3. 외 화 장 기 차 입 금	3,002,227
3. 반 제	686,943,537	4. 외 국 차 관	26,449,042
4. 원 료 및 제 료	569,639,853	5. 외 직 급 여 충 당 금	224,282,133
5. 연 료 및 제 료	339,799,649	6. 이 연 법 인 세 부 채	384,241,521
6. 미 작	645,826,073	7. 기 타 의 고 정 부 채	80,513,651
7. 기 타 의 고 조 자 산	531,792	부 채 총 계	4,571,214,681
II. 고 정 자 산	18,491,987,732	(자	
(1) 부 자 산	5,796,454,243	본	
1. 장 기 금 융 상 품	44,900	I. 자 본 금	482,403,125
2. 장 기 투 자 증 권	5,658,350,545	II. 자 본 잉 여 금	3,934,587,486
3. 장 기 설 비 채 권	28,258,808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463,825,293
대 손 충 당 금	△5,687,281	2. 재 평 가 적 립 금	3,172,775,771
4. 보 증	971,665	3. 기 타 의 자 본 잉 여 금	297,986,422
5. 기 타 의 부 자 자 산	114,544,410	III. 이 의 잉 여 금	18,743,894,243
대 손 충 당 금	△28,804	1. 이 의 준 비 금	241,201,563
(2) 유 형 자 산	12,466,115,714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918,300,000
1. 토 지	852,351,881	3. 연구 및 인 회 계 발 립 금	1,383,333,333
2. 건 지	3,321,950,744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12,957,5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73,222,250	5. 배 당 권 적 립 금	569,232,914
3. 구 축	2,129,198,788	6. 처 분 전 이 잉 여 금	3,274,326,43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872,644,793	(상 손 이 3,206,649,728원)	
4. 기 계 장 치	22,351,265,241	IV. 자 본 조 정	△1,369,226,69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756,521,843	1. 자 기 주 식	△1,670,689,854
5. 차 량 운 반 구	169,982,675	2. 장 기 투 자 증 권 가 손 이	301,463,16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7,338,302	자 본 총 계	21,791,658,162
6. 공 구 와 기 구	139,994,836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6,287,961		
7. 비	147,141,93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5,245,782		
8. 건 설 중 인 자 산	2,811,490,559		
(3) 무 형 자 산	229,417,775		
1. 산 업 재 산 권	1,084,555		
2. 향 만 시 설 이 용 권	112,101,726		
3. 임 차 권 리 금	2,700,489		
4. 기 타 의 무 형 자 산	113,531,005		
자 산 총 계	26,362,872,8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6,362,872,843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2월 23일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이구택

감사의견 :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39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경태

고조선 ‘신화’의존 탈피 中 동북공정 강력 대응

고교 역사교과서 개편 의미

교육부가 올 고교 교과서부터 고조선을 공식 역사로 편입시키고 한반도 청동기문화 전개 시기를 1천 년이나 소급한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판단이 직접 통력이 됐지만 그에 앞서 그동안의 국내의 고고학, 역사학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축적된 결과라고 봐야한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한반도 상고사를 강화하되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중심주의적 사고에 따른 또 다른 역사 왜곡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상고사를 이겨낸 바꾼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한반도 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해서다. 그동안 신화 형태로 기술된 고조선 건국 관련 부분을 공식적인 우리 역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 국민 다수의 요구가 일차적 동기가 됐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당시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라는 교과서 내용이 무슨 뜻이나, 이 표현은 매우 수동적이다. 어디서 전해들은 이야기 형태로 쓰여 있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라며 교과서 개정을 요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육부가 단군왕검의 이야기를 역사로 편입하고 고조선이 기원전 2천년에 시작된 청동기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성립했다는 점을 고교 교과서에 명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기원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교과서에 한(漢)의 영토를 거의 충청지방까지 이르는 것으로 표시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한반도는 모두 중국의 영토였다는 식으로 가르쳤고 일본 교과서 연표에도 고조선에 대한 기술 없이 곧바로 한국 역사의 시작이 낙랑군과 고구려로 표기돼 있다.

신 교과서에는 ‘신석기 말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요령(랴오닝), 러시아의 아무르 강과 연해주 지역에서 들어온 덧띠새김무늬 토기 문화가 앞선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약 500년간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새로 기술됐다. 이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천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가 본격화된다’라고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전파된 시점이 종전보다 500년에서 1천 년 앞당겨진 셈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근무시간 음주맨 감봉·견책 등 경징계

광주시교육청 감사 처분 기준

광주시교육청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실 경우 경징계하는 등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을 상세히 마련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을 비위 유형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4가지로 나누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과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는 공문서 허위작성 및 위·변조, 공문서 파기 및 분실, 증명서 부정발급, 무자격 교직원 임용, 성폭력 및 성희롱, 학생 부정 입학, 공금 횡령 등이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검찰 고위직 인사

〈고검장급 전보〉▲법무부 차관 정진호 ▲법무연수원장 임재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정동기 ▲서울고검장 홍경식 ▲부산고검장 박상길 〈대검 검사급 전보〉▲법무부 ▲법무실장 한상대 ▲보호국장 이상도 ▲감찰관 이복태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근호 ◇대검찰청 ▲중수부장 이귀남 ▲형사부장 조승식 ▲마약조직범죄부장 강충식 ▲공안부장 이준보 ▲공판송무부장 황희철 ▲감찰부장 김종인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 김상봉 ▲서울남부지검장 천성관 ▲서울북부지검장 안종택 ▲서울서부지검장 김수민 ▲의정부지검장 박상욱 ▲인천지검장 이훈규 ▲수원지검장 이동기 ▲대전지검장 김준규 ▲청주지검장 박용석 ▲대구지검

장 문효남 ▲부산지검장 김태현 ▲울산지검장 박한철 ▲창원지검장 이한성 ▲광주지검장 신상규 ▲전주지검장 박영관 〈고검장급 신규〉▲대전고검장 박영수 ▲대구고검장 권재진 ▲광주고검장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안영욱 〈대검검사급 신규〉▲법무부 정책홍보 관리실장 박영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희하 ▲대전고검 차장 이인규 ▲대구고검 차장 김진태 ▲부산고검 차장 채동욱 ▲광주고검 차장 안창호 ▲서울고검 형사부장 조한욱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정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박기준 ▲춘천지검장 박태규 ▲제주지검장 정진영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준준 ▲대전지검 차장검사 소병철 ▲대구지검 1차장검사 민유태 ▲부산지검 1차장검사 노환균 ▲광주지검 차장검사 김태기 〈고검검사급 전보〉▲서울고검 감사 권태호

생활 게시판

화측

▲조구현(조선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씨 차남 영준(SK텔레콤 대리)군 정총씨 3녀 세영(중학교 교사)양=24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머

랄드홀. ▲김영숙(광주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씨 장남 준형군 신동엽씨 장녀 선미양=25일(일) 낮 12시 20분 삼복회관 3층. ▲박기선씨 장남 철(광주일보 운전부)군 김영면씨 막내 선남양=25일(일) 낮 12시30분 센트럴시티 웨딩컨벤션 2층 해피홀. ▲이홍제(전남도의원)씨 장남 병대군 홍대영(서광주세무서)씨 차녀 은희양

=3월11일(일) 오후 1시40분 순천시 탑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부음** ▲김희근(전 광주일보 이사)씨 별세 종친(마르크 무역이사)·종원(LG화학)·종국(메리츠화재)씨 부친상=발인 25일(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11-609-3093, 515-4488 ▲김판규씨 별세 대수(자영업)·현수·

삼숙씨 부친상 이금수(부동산업)씨 빙부상=발인 24일(토) 송정장례식장 201호. 941-7102 ▲전규정씨 별세 일중·만중(서울 중구청)·호중(광주 동부경찰서)·명덕·명례·명신씨 부친상 김재열·정기를 박문규(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씨 빙부상=발인 24일(토)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